

대학생의 애착과 삶의 질의 다중 매개변인: 스트레스, 정서, 사회적지지, 정신건강문제[†]

Multiple Mediating Effects between Attachment and Life Quality among Freshmen in University: Stress, Affect,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진효정*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Jeon Hyo Jeo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between attachment and life quality among university freshmen, regards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tres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s mediating factors. 200 freshmen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naire study in a university in Busa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tress,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and life quality with attachment.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revealed that attachment had no direct link with life quality. Attachment had indirect effects on life quality, mediated by positive affect and mental health.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Keywords: Freshmen, Attachment, Life Quality, Mediating Effects

I. 서론

인간의 발달단계 중 대학생은 성인기로 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인격의 성숙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신입생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도기적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은 발달적 특성으로 심리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 사회적, 자아적 욕구가 고조되므로 욕구좌절의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충분한 적응기술을 획득하지 못해 적응에 많은 결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이 발달상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Lim, 1988). 특히 이 기간 동안의 적응 여부와 환경, 스트레스, 개인의 생활양식 등은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ng *et al.*, 2007; Han, 2006; Kim, 2011). 그러므로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성인기의 성공적인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2009년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Hyo Jeong Jeon

Tel: +82-51-200-7308, Fax: +82-51-200-7312

E-mail: hjeon@dau.ac.kr

삶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인류가 추구하여 온 보편적인 가치이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소득, 인구학적 변인, 사회적 행동 및 생활사건, 성격, 신체적 요인 등 다양하다(Braun, 1977; Campbell, 1976; Lee & Lee 1998; Liang *et al.*, 1980).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Bowlby의 애착이론(1969, 1973, 1980)을 청소년기 및 성인기 대인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유아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기저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Ainsworth, 1978; Bowlby, 1982). 영아가 양육자와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Jeon & Lee, 2002). 청소년기의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애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msden & Greenberg, 1987; Yoo, 1991).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처 전 인생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많은 연구들은 애착을 사회적 지지,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연관 지어 보고 있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더 나은 학교에서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Bradford & Lyddeen, 1993; Lapsley *et al.*, 1990)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고, 친구들과의 더 많은 사회적 연결망을 갖도록 하며,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한다고 보고한다(Kim & Han, 1997; Kim, 2004). Kahn과 Autonucci(1998)은 애착이론을 사회적 지지 개념화에 이용하였는데, 애착관계는 일생을 통하여 타인을 이용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접촉의 근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Yoo & Lee, 2006).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중요성은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청소년 후기에 한 층 더 두드러진다(Ryan *et al.*, 1996).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안정기저가 되어 영유아기 아동의 활발한 탐색을 격려하듯이 청소년 후기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 대한 신념은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기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Kenny, 1987). 실제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후기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안정된 애착관계를 가진 대학생들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Kenny, 1987), 보다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였으며(Mallinckrodt, 1992; Rice *et al.*, 1997), 자아회복력이 높은 반면 불안감과 적대감은 낮고,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였으며(Kobak & Sceery, 1988), 진로탐색에 있어 자아효능감이 높았다(Ryan *et al.*, 1996). McCormick과 Kennedy(1994)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대학생의 대학적응도가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Baik, 2000;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 Whaley, 1994).

성인애착기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하게 활성화되었을 때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각각 유의미하게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는데(Ainsworth, 1985),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애착 유형은 평소처럼 지내며 자신이 가치 있고 타인 또한 신뢰 할 수 있다고 여기므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정신적 표상에 맞는 정서적 지지관계 속에 놓일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이해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애착(애착 유형)의 내적실행모델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이에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1. 애착과 삶의 질을 연결하는 매개변인

애착경향과 삶의 질과 관련 있는 변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애착이론을 토대로 애착과 삶의 질의 매개경로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애착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잠재 매개변인들 중 첫째로 긍정적, 부정적 정서 상태를 들 수 있다. 애착대상과 긍정적관계일수록 타인으로부터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 인식과 부정적 감정에 대한 적응을 조절하는 건설적 감정조절을 증진시킨다(Bowlby, 1969; Diamond & Hicks, 2004). 불안저항 애착유형자들은 부정적 감정에 아주 민감하고, 불안회피형은 감정불능증과 같은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Feeney & Ryan, 1994; Searle & Meara, 1999; Weardon *et al.*, 2003), 이러한 감정 상태와 삶의 질 간의 강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Watson & Pennebaker, 1988). 부정적, 긍정적 감정 모두 기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리가능하며, 모두 애착과 삶의 질의 잠재적 중재변인이 될 수 있다(Cacioppo & Gardner, 1999; Frederickson, 2001). Park(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불안애착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강할수록 긍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며, 불안애착이 강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고 하겠다(Yoo, 2005).

애착과 삶의 질의 두 번째 잠재경로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Bowlby(1969)에 의하면 안정애착형은 어려움을 잘 다루는 건설적 전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한다(Mikulincer & Florian, 1998). 반대로, 불안저항형은 약점에 대한 자기인식, 스트레스의 고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증상들을 보인다(Diamond & Hicks, 2004; Mikulincer & Florian, 1995; Mikulincer *et al.*, 1999). 불안회피형은 신체적 반응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 부정적 감정의 억압이 동반된다. 주관적 감정반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이입적 신경체계의 반응과 신체적 명확성 사이의 연관이 없으나, 시간에 따른 건강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명확하므로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Diamond *et al.*, 2006).

세 번째 경로는 사회적 지지로 가정할 수 있다. 안정애착관계는 위협과 상실에 대한 반응에서 안정적 감정을 제공할 것이다(Bowlby, 1969). 나아가, 연구자들은 안정 애착된 성인들이 보다 지지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구한다(Florian *et al.*, 1995; Larose & Bernier, 2001; Mikulincer *et al.*, 1993; Moreira *et al.*, 2003). 또한 안정애착은 헌신적이고 지지적이고 만족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Banse & Banse, 2004). 국내외 연구들에 의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가 증명되고 있다(Ha & Chang, 2011; Park & Cho, 2011; Sarason *et al.*, 1990).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하고 그 자체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착의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의 질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rose, 1993). 이런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아동보다 성인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켜 간다

는 애착이론가들의 주장과 일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Yoo, 2005)에서는 불안애착과 사회적 지지요인에 정적상관이 있으며,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네 번째 경로는 정신건강문제로 가정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삶의 질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삶의 질의 하위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Kim, 2007; Ryu *et al.*, 1999). Kang(2004)은 감정표현이 신체화 증상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이론과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위의 네 가지 잠재적 경로, 즉 긍정적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정신건강문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애착경향과 삶의 질을 연결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비록 개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로들은 실험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정적 감정은 더 큰 스트레스, 감소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정신건강문제 등과 연관이 있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더 빈번한 긍정적 정서와 더 적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Maunder와 Hunter(2001)는 다중 경로를 제안한 반면, 연구자들은 애착경향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가 감정, 스트레스, 정신건강문제와 사회적 지지의 연합효과에 의한 중재가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검증은 되어 있지 않다. 경로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애착과 일관되게 모든 경로를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각 잠재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애착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커니즘을 애착이론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개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생애전환점에 있는 대상자들 중 측정이 용이한 대학신입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애착과 삶의 질 또는 건강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그리고 정신건강 등 다중경로를 총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첫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대학에 입학하

는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애착과 삶의 질 관계 사이에 다양한 선행연구와 애착이론에서 도출된 다중 경로에 의해 매개되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 1> 애착경향에 따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애착은 어떤 매개경로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교 1개교의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을 소그룹 또는 개인으로 약 45분정도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애착: 애착경향은 30문항으로 구성된 관계척도질문(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 RSQ; Griffin & Bartholomew, 1994)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관계의 특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전혀 다르다’(1점)에서 ‘매우 같다’(5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각각 .67, .71, .64,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애착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 하위척도의 애착특성 경향으로 보았다.

2) 긍정적, 부정적 감정: 감정 측정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계획도구(PANAS; Watson *et al.*, 1988)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형용사 10개와 부정적 형용사 10개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1-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은 각각 평균점수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긍정적 감정 .89, 부정적 감정 .94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문항(Social Support Questionnaire, SSQ; Sarason *et al.*, 1987)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 SSN)은 각 문항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의 수로 목록에 있는 사람의 수를 세고 총점을 냈으며, 사회적지지 만족(Social Support Satisfaction(SSS)은 6가지 만족에 대한 평정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전체 문항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Delongis *et al.*(1988)가 개발한 Daily Stress Inventory(DSI)를 Kim(1995)이 번안한 3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Figure 1] Hypothesized four-pathway model

5) **정신 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 (1975, 1977)가 개발한 SCL-R-90의 단축형 BSI(The Brief Symptom Inventory)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화 6문항, 우울 6문항, 불안 3문항, 그리고 공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6) **삶의 질:** Diener *et al.*(1985)이 개발하고 Won(1989)에 의해 번안된 생활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Lee(1992)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의 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는 .93이었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및 AMOS 20.0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신뢰도 및 변수들 간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를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가 다수인 관계로 매개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LI, CFI, RMSEA값을 살펴보고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애착경향에 따른 삶의 질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애착 안정형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건강문제가 낮으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거부형과 두려움형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문제가 높고 삶의 질이 낮았다. 이와 유사하게 의존형은 삶의 질과 역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는 거부형 및 두려움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매개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사용하여 애착과 삶의 질 사이에 정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경로모형은 p-value .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chi-square = 81.25, df= 38), 모형 적합도TLI와 CFI는 각 .90, .91로 .90보다 크고, RMSEA는 .07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된 모수치의 경로계수에 의하면, 애착과 매개변인들 간의 관계는 애착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그리고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긍정적 정서가 빈번하고 사회적지지가 높고, 반면 부정적 정서는 낮고

<Table 2>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Life Quality

	Mediating Factors					Life Quality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ocial Support	Stress	Mental Health	Total	Direct	Indirect
Attachment	.406***	-.615***	.566***	-.225**	-.822***	.690***	.083	.607***
Mediators								
Positive Affect							.330**	-
Negative Affect							.090	-
Social Support							.059	-
Stress							.014	-
Mental Health							-.471***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the Other Research Factors

Attachment	Stress (DSI)	Affect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BSI)	Life Quality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ecure	-.116	.376**	-.359**	.425**	-.456**	.448**
dismissing	.203*	-.096	.240**	-.198*	.219**	-.166*
Preoccupied	.139	-.157	.106	-.059	.122	-.182*
Fearful	.179*	-.151	.314**	-.301**	.297**	-.321**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가 많았다. 한편, 제안된 매개변인들 중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문제만 삶의 질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변인들의 다중상관치 SMC는 .4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안된 변인이 삶의 질을 48.3% 설명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애착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beta = .607, p < .01$)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은 삶에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매개변인들로 제안된 정서,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등의 4개의 경로 중 긍정적 감정과 정신건강문제의 2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문제가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은 정신건강문제가 긍정적 정서에 비해 높았다. 삶의 질은 긍정적 정서가 빈번하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애착경향이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4개의 잠재적 다중매개경로 중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문제를 지지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삶의 질 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애착과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그리고 정신건강문제 등 다중경로를 총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그 경로를 상대적으로 잘 측정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고 애착과 삶의 질 관계 사이에 다중 매개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매개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하여 제안된 4개의 매개경로를 검증한 결과, 애착경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은 매개경로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의 경로 중에서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문제가 삶의 질의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문제가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애착이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통해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 정서와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애착과 삶의 질 사이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을 잠재적 다중매개변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애착이 어떠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학교의 학생지도와 서비스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이 전체 삶의 질의 48.3%의 설명력을 있다는 것은 나머지 반 정도는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혹은 애착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향후 삶의 질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대학신입생, 애착, 삶의 질, 매개변인

REFERENCE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Erlbaum.
- Ainsworth, M. D. S. (1985).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 792-81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ik, J. S. (2000). Attachment to paren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27-137.
- Banse, R. & Banse. (2004).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Evidence for dyadic config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 Relationships*, 21, 273-28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 - 118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New York: Basic.
- Bradford, E. & Lyddon, W. J. (1993). Current parental attachment: Its relation to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56-272.
- Braun, P. M. W. (1977).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2351A.
- Cacioppo, J. T. & Gardner, W. L. (1999). Emo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191-214.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hang, W., Park, Y., & Kim, U.(2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4(2), 1-17.
- Derogatis, L. R. (1975). *Brief symptom inventory*.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1: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Hassles, health, and mood: A prospective study with repeated daily measur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5.
- Diamond, L. M. & Hicks, A. M. (2004). Psychobiological perspectives on attachment. Implications for health over the lifespan.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Guilford.
- Diamond, L. M., Hicks, A. M., & Otter-Henderson, K. (2006). Physiological evidence for repressive coping

- among avoidantly attached adul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2), 205-230.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 - 75.
- Feeney, J. A., & Ryan, S. M. (1994).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Relationship with health behavior and family experiences of illness in a student sample. *Health Psychology*, 13, 334-345.
- Florian, V., Mikulincer, M., & Bucholtz, I. (1995).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on the perception and search for social support. *Journal of Psychology*, 129, 665-676.
- Fredrikson, B. A.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0-22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17-52.
- Ha, J. & Chang, Y. (2011).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m to subjective well-be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giving among college students: Received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427- 449.
- Han, S. (2006).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5), 99-116.
- Jeon, H. J. & Lee, K. O. (2002). The effects of early attachment history with mother on adolescent attachment formation and stres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2), 191-210.
- Kahn, R. L. & Antonucci, T. C. (1994).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Baltes, B. P. & Brim, O. G.(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pp. 253-268). London: Academic Press.
- Kang, S. H. (2004). *The effects of psychodrama on the alexithymia, somatization, and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enny, M.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7.
- Kim, D. J. & Han, S. Y. (1997). Dis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2), 91-109.
- Kim, C. H. (1995). Relationship of the daily hassle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trategies with emotional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7(1), 44-69.
- Kim, J. H. (2007). *The effect of university service satisfaction on quality of student's life and their attitude toward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55-68.
- Kim, N.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1-1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adolescence: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4-146.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G., & Jackson, S.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and the "new look" at the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 51-63.
- Larose, H., Tracy, J., & McKelvie, S. J. (1993) Effects of gender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6), 677-689.
- Larose, S. & Bernier, A. (2001). Social support processes: Mediators of attachment state of mind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96-120.
- Lee, J. (1992). *The contribution of participation in sports & exercise programs to life satisfaction of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A. & Lee, H. S. (1998). A study on quality of life

- among college student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5(2), 105-117.
- Liang, J., Dvorkin, L., Kahana, E., & Mazian, F. (1980). Social intergration and morale: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5, 746-757.
- Lim, S. H. (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allinckrodt, B. (1992).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the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53-461.
- Maunder, R. G. & Hunter, J. J. (2001). Attachment and psychosomatic medicine: developmental contributions to stress and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63, 556-567.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 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ikulincer, M. & Florine, V. (1995). Appraisal of and coping with a real-life stressful situation: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ikulincer, M. & Florine,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A. Simpson & W.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143-165).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Mikulincer, M., Horesh, N., Eilati, I., & Kotler, M.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mental health in extreme life-endangering condi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831-842.
- Moreira, J. M., de Fatima Silva, M., Moleiro, C., Aguilar, P., Andrez, M., Berandes, S., & Alfonso, H. (2003). Perceived social support as an offshoot of attachment sty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485-501.
- Palladino, D. E.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Park, E. Y. (2004). *The Influence high school girls' attachment has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 Cho, M. (201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port particip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5(1), 1-28.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 Whaley, T. J. (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within-semester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324-330.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 Ryu, M. K., Park, K. M., & Kim, C. N. (1999).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5(1), 29-42.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1990).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Wiley.
- Sarason, I. G. & Sarason, B. R. (1987). *Abnormal psychology: The problem of maladap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 attachment style: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6, 147-158.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atson, D. & Pennebaker, J. W. (1988). Health complaints, stress and distress: Exploring the central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Psychological Review*, 96, 234-254.
- Weardon, A., Cook, L., & Vaughn-Jones, J. (2003). Adult attachment, alexithymia, symptom reporting and health-related cop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5, 341-347.
- Won, H. (1989). Translation study of leisure diagnostic battery.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6(1), 101-106.
- Yoo, E. H (1991).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attachment and autonomy as related to young adults'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 K. J. (2005).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Yoo, Y. R. & Lee, J. Y. (2006).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 conceal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441-460.

접 수 일: 2013. 01. 11

수정완료일: 2013. 04. 05

게재확정일: 2013. 04. 17